

준우의 토요일

글 | 양희진

그림 | 강아람

글 | 양희진

그림 | 강아람

편집 | 김은파, 이수인, 이정아

편집 디자인 | 이해명

목소리 | 황창영





“할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어요!”

토요일 아침, 준우는 할아버지
방에 가서 아침 인사를 드렸어요.

“일찍 일어났구나. 아침은
먹었니?”

“네. 할아버지도 진지
잡수셨어요?”

“오냐.”



“다녀오겠습니다!”

“준우야, 점심밥 때까지
돌아와라. 재밌게 놀고.” 엄마가
말했어요.



“준우야, 어디 가?”

집 앞에서 민서를 만났습니다.

“학교에, 축구하러.”

민서가 준우에게 젤리 한 개를
줬어요. 준우는 “고마워.” 말하며
받았어요.



“준우야! 얼른 와!”

준우는 요셉이와 동빈이와
손바닥을 부딪치며 인사를
했어요. 운동장에는
이곳저곳에서 서너 팀이 공을
차고 있었어요.



축구를 하다 준우가 찬 공에
요셉이가 맞았어요.

“요셉아, 미안해. 아파?”

“괜찮아. 많이 아프지는 않아.”

축구는 그만해야겠어요.



셋은 놀이터로 갔어요. 동빈이
할머니가 아기를 데리고 나와
계셨어요. 할머니께 배꼽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그새 둘 다 많이 컸구나. 너희
요구르트 먹을래?”

“네! 감사합니다!”



“준우야, 호주에 가신 할머니는
언제 돌아오시니?”

“다음 달에요.”

“동빈이 할머니가 안부
문더라고 전해라.”

“네.”



“다녀왔습니다! 엄마, 동빈이
할머니께서 요구르트를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했어?”

“응, 당연히 했지요.”

“잘했어, 역시 이준우야.” 하며
엄마가 안아 주셨어요.



그날 저녁, 준우는 호주에 계신
할머니와 통화를 했어요.

“할머니, 동빈이 할머니가 안부
인사 전해 달라고 하셨어요.”

“다음에 동빈이 할머니 뵈면,
‘떠날 때 인사도 못 하고 와서
미안했어요.’라고 전해라.”

준우는 할머니 말씀을 잘 기억해
뒀습니다.

“준우의 토요일” is licensed under CC BY 4.0 by Enuma, Inc. & The Foundation SeeArt for Book Culture. To view a copy of this license, visit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4.0/>.

© 2019 by Enuma, Inc. & The Foundation SeeArt for Book Culture